

나는 국가를 믿지 않는다

에피소드 1.

지난 겨울방학 중 학장실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조형연구소 기금 통장에서 잔액 이천만원 남짓한 돈이 몽땅 인출되고 빈 통장만 남아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. 이리저리 추리해본 결과 전 행정실 조교였던 모 군의 소행으로 추정되었다. 수도권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인 모 군을 불러 추궁해보았으나 완강히 부인.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간곡히 설득하여 범행을 자백 받았다. 그러나 돈은 딱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다 써버린 상태. 봉급의 절반을 떼어 매달 갚기로 하다. 다 갚는 데 이 년쯤 걸릴 예정.

에피소드 2.

일본영화 <은행털이범과 어머니>(원제는 휘발성(揮發性)의 여(女))에 나오는 장면: 범인은 어머니 집에 침입하여 밥을 얻어먹고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선 칼로 위협하여 어머니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잠이 든다. 어머니는 범인이 잠든 사이 칼로 묶은 줄을 끊고 범인에게 그 칼로 상처를 입힌다. 범인은 도망다니기에 지쳤다며 경찰을 불러달라고 한다. 어머니는 거절하며 네가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라고 한다. 사건에 말려들기 싫다고... 둘은 결국 파국적 사랑에 빠진다.